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김성찬 편집인:노광현 편집국장:이형수

“주의 만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의 만찬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절하시
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
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
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
26).

2003년도 제2차 성찬식

2003년도 제2차 성찬식이 오늘 1부 예배에서부터 5부 예배에 걸쳐서 베풀어진다.
격월로 베풀어지는 성찬식을 통하여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거룩
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연합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자.

성만찬의 의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만찬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먼저 성만찬은 ‘감사
의’ 때문이다. “이그나티우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
기 위하여 기쁘한 한 종다 자주 모이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디다케(Didache)에 수
록되어 있는 최초의 성만찬 기도들은 거의 전부가 감사의 기도들이다. “우리는 당신
의 아들인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대하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당신께 감
사합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이나 예수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
습니다. 당신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그
의 창조주 권위에 있어서 선물물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때이다.

또한 성만찬은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디다케’
안에는 연합에 대한 교훈이 풍성하게 담겨있다. “이 깨진 떡이 산들 위에 흩어져 있
다 한데 모여 하나가 되듯이, 당신의 교회와 땅 끝에서 모여와 하나가 되어 당신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
록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회는 오히려 성만찬으로 인하여 분열
을 가져왔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거룩한 주님의 식탁을 더럽힌 결과를 낳은 것이

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누
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할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니라”(고전 11:27).

성만찬은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바울은 성례전의
끝에 자신의 말을 이렇게 첨가하였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성만찬은 그 자체가 ‘케
리그마’(Kerygma), 즉 선포이다. 바울 성례전의 생생한 드라마에서 복음의 사실들
이 그림으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만찬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표현이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제림하실 때
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마 26:29)라고 말씀하셨다(참조막 14:25, 눅 22:18). 이것은 그리스도
인의 종말론적 믿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만찬에서 우리는 주님의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의 당당한 제림의 확실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성만찬은 기념의 성례전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신약성경
의 가르침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임
을 주시지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여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거듭 죄를 범하기 때문에 성만찬을
계속해서 받아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준다. 어디 그 뿐이랴! 우리는 죽어 없어져 버린
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살았다가 죽어서 기억을 남겨 둔 분을 기억하
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기
억하는 것이다. 영생스럽게 살아나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원래 성례전(sacramentum)이란 용어는 군인이 황제에게 충성
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의미하는 말이다.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가 만나 경험한 분에
게 우리는 새롭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단의 의지와 행동을 필요로 한다(W. 바르레
이의 ‘성만찬’).

신령한 예배를 위한 제단(3) “하나님은 영이시니”(요 4:24a)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靈)이시니’라는 선언은 예배의 본질
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서,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
게 이해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
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를 지니고, 만
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예배한다면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실 하
나님께 대한 논의를 신자들로부터 하리곤 ‘이런’의 사람들처럼 ‘절시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헛된 예배’에서 벗어
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인양적인 의미 - 헬라어에서 *πνεῦμα ὁ θεός* 주(主)인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있고 곧사가 생략되어 있다. 술
어(敬語)인 ‘영’이 문장 첫머리에 있으며 곧사가 생략되어 있지 않다. 술어는 강조하기 위해 전치(前置)되어있다.
즉 본질상 하나님은 영원히 영인 것이다. 그는 세신(三神)이나 육신(肉身)이 아니며 이 신이나 저 신에서 예
배를 받거나 할 신산신(神山)이 아닌 신이다. 하나님은 독존이시며 무형이시니 이념적 실존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존재적인 의미 -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靈)인 하나님’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소
부지(無所不在)하심’에 대한 본질을 강조하였다. 사실 이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절사’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
리는 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주를 섬기며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찌로 할리이까”(시 137). 하나님의 무한신성은 모든 한 순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으시며, 이 생생의 어떤
장소에도 무뎠지 있지 않으시고, 모든 곳을 감찰하시며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다.

존재론적인 의미 - 또 다른 이들은 ‘영(靈)인 하나님’을 ‘유일성(唯一性)과 불가사의성(非可思議性)의 영’ 즉 ‘일체
(實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백하였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의 이름 ‘영’과 ‘영
의 이름’을 가진 영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표현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논
리적으로도 그것을 수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이 계시는 하나님임이요, 항상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으로서 무한히 행하시니 때문에 이러한 영에 맞닿은 자들로 예배해야 한다. “다 영호와
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높으니 높으시라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도다”(시 148:3). ‘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마 6:7).

초월성 또는 무한성의 의미 - 한편,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靈)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영’이라는

것을 물질과 상반되는 ‘초월성(超絶性)으로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무
한성(無限性)으로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은 어떤 어떤 것에도 재해(再害)나
제한(制限) 받지 않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사실 이 구절은 사람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된다. 그는 모든 생령과 효을
을 주신 자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니 때문에 영광을 17:25).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제한받으시기
내행 7:48). 사람의 어떤 도움의 손길도 필요치 않다. 진리로 그의 존재 자체를 이해할 필요도 없으며, 그
본성에 있어서도 아무런 한계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해서 우리는 우리들과는 달리 신이신다 공경의 제재를 받
지 않고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저급’ 이 순간에도 우주의 기원과 시초(始)를 재창조로 계시
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한한 절대적 자유의 개념을 깨를 수 있
다. “절능자(全能者)보다도 초월할 수 없나”(골 3:72). ‘영’이었으며 존은 무 땅 위에 존재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
시니이다’(시 97:9).

지존성의 의미 - 하나님은 ‘영(靈)인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에 대하여,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근본적 본질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지존성(自存性)을 가지고 사유하는 본으로 묘사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은 ‘형식’에서 보아진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한 신성 자체’의 의미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것은 그리스도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령으로서 영속적으로 끝이 없는 존존
그 자체임을 뜻한다. 또한 생령의 효을 그 자체요, 존재의 숨결 그 자체이며, 생령의 존재 그 자체이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도록 완전한 인간 완전한 생령 완전한 지혜 완전한 존재로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
와 아들은 ‘자비와 자애를 주께 속해 나타나신다’ ‘영’으로 말미암아 지극 깊은 연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아내게 이르시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골 3:14). ‘영’이외에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
셨다고 여호와께서 능력이요 미스오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시도다’(시 93:1).

숭고하신 생령의 의미 -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어구의 표현에 대해 구약시대 각대로 해석한 이들도 있
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신과 인간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극하고 ‘숭고하신’ 감을 내포하고
고 말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과 여가에게 하신 하나님의 참 본성에 대해 신령으로 계시고 그러므로 하
나님이 인간과 같은 그러한 분으로서 지상의 왕처럼 어떤 특별한 한 장소에서만 그를 찾을 수 있고, 그에게 나아
갈 수 있고, 그의 아래에 있을 수 있다고 생애해하는 인간들은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므로 완전한 관계를 맺
어야만 하는 그분께 대하여 그는 좀더 자애 높고 숭고한 견해를 가져와 한다. 그러는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
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발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가장 숭고하고 명확한 표현의 종을 하나이다. 이처럼 숭고한 신묘가 그분과 사
약하고 무지한 시편과 여가에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감을 보아주는 놀라운 예이다. “나는 미미
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언어를 맺고 내게 배우라’(마 11:29).

WORD OF FAITH

(Romans 10:3~13)

"... But what does it say? 'THE WORD IS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is, the word of faith which we are preaching,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shall be saved; for with the heart ma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ing in salvation..."

The Bible tells us, "For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to everyone who believes"(v. 4). This is a significant statement! The law could not provide righteousness based on merit, but Christ provides righteousness based on God's grace in response to faith. For more than 6,000 years, the Jews tried to substitute law-righteousness for faith-righteousness, "For not knowing about God's righteousness and seeking to establish their own, they did not subject themselves to the righteousness of God" (v. 3). Their hearts bent toward doing the right things and being good persons. They lived their lives for the will of God under their own righteousness, not His. Sadly, many believers today are living the same way. Church leaders are teaching legalism—preaching biblical morals without the cross. Church members are thinking that their daily prayers, weekly tithes, monthly ministry work, and overall good deeds make them righteous. In such practices, the idea of faith-righteousness is lost, and the need for Jesus forgotten.

God gave the Jews every opportunity to receive the gospel, but they had not responded in faith. Today, many Jews do not work on Saturday because they want to honor the Sabbath. Some work a little, thinking God will understand, and some work a lot, thinking God knows they love Him. Many Christians act in similar fashion. They try to go to church every Sunday, but if they miss a Sunday, they reason that they have gone more than they have missed, so God will understand. They also try to read their Bibles on a regular basis, but if they forget or miss a few days, they rationalize that God will still love them. Moreover, they try to be good and do good, hoping to find favor in God's eyes. Such living does a good job for promoting legalism—the law of righteousness! It does nothing to encourage or support faith-righteousness.

The Jews had a very fervent love for God. Paul even testified that they "have a zeal for God" (v. 2). Christians have a passionate love for God. Both groups want to live their lives for God, but sometimes they look at the law as more important than their lives. When people do this, their inner and outer spirituality contradict each other. The inner desire to do God's will contradicts the outer action. In other words, the inner and outer objectives do not match—they are not the same. When God gave His Son, His Son gave everything, body and blood. Jesus' inner and outer spirituality are the same. That is why Jesus asks us to give Him everything. He calls us to deny ourselves.

If you keep your own pride, your own image, or your own way of doing things, then your outer and inner spirituality will be different. If inside you still want to do the law, instead of delight in it, then your inner and outer spirituality will oppose each other. Righteousness based on faith speaks as follows: "Do not say in your

heart, 'Who will ascend into heaven? or 'Who will descend into the abyss?'" (vv. 6-7). Those who think that if they do this good thing they will go to heaven, or this bad thing and they will go to hell, do not know God's righteousness. That's legalism! The important thing, the real important thing, is to know that Jesus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Humans need to stop talking about all the other stuff.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What does Christ being the end of the law mean? It means that our inner and outer spirituality belong to Him. Amen! Faith-righteousness says, "The word is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v. 8). Paul explains, "that is, the word of faith which we are preaching,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vv. 8-9). In other words, the word of faith brings righteousness. In faith, the inner and outer aspects of our spirituality are the same.

Paul preached the word of faith, not legalism. For only the word of faith makes our hearts and mouths alike. Our mouths are an outward element. When you confess Jesus as Lord, you are saying He is the boss, not you. Our hearts are an inward element. When you believe that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to give you eternal life, then you are saved. The Bible clearly says, "...for with the heart a perso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ing in salvation" (v. 10). These are simultaneous actions: one inward(heart) and the other outward (mouth). Our inner and outer spirituality results in the same thing: righteousness (not legalism) and salvation (not legalism). Those who do not respond to God's grace in faith, still talk about legalism. Those who do respond to God's grace know that the law for righteousness ended in Jesus. The word of faith makes the heart and mouth go together.

The Bible says,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 (v. 11). Whoever is a key word. It means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Jesus is Lord of all, "abounding in riches for all who call on Him" (v. 12). Now, if your inner and outer spirituality are the same, then your love for others should be the same. If you and God are one, then you shouldn't talk differently to other people. Whether someone's nice to you or someone's not so nice, you treat them the same. The word of faith says that insiders and outsiders receive the same love. Insiders and outsiders come in different colors and nationality. As such, your fellowship with people who are Korean, Chinese, German, Black, Indian, Spanish, or "whoever" should be the same because Jesus is the Lord. Our proclamation of the Gospel goes to everyone, not just our relatives. Joel 2:32 reminds us, "And it will come about that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delivered."

We are called to go, preach, and teach the Word of God. We have to go to "whoever" God calls us. If you don't go, then your inside/outside spirituality is not the same. Too many people refuse God's calling with excuses. They're too busy, they're situation is too hard, or something. God provides everything. There is no defense. All believers go from darkness to brightness, from sinner to God's child, and from earth to heaven. The word of faith is a powerful means.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Lent. Jesus wants us to be righteous. Humans lost their righteousness at the Garden of Eden. Legalism cannot bring salvation. Jesus came down from heaven to Jerusalem to take the cross. Because of His sacrifice, the law ended and the word of faith began. Our inner and outer spirituality can be the same. Our inside and outside relationships can reflect God's grace. Jesus made faith-righteousness, and He asks us to follow Him. The Jews pursued the law of righteousness, but they did not pursue it by faith. They pursued it as though it were by works. They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Let us not be deceived. Jesus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The word of faith results in righteousness and in salvation. Let us remember our need for Jesus. Amen. 

믿음의 말 (롬 10:3~13)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김성관 목사

믿음의 의(義)를 상실함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4절). 이것은 중요한 진술입니다! 율법은 가차에 기반을 둔 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둔 의를 베푸십니다. 6천년 이상의 세월 동안, 유대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를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義)’로 대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나니”(3절). 그들은 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義)가 아닌 자기의 의(義)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으며, 십자가를 성실한 길의 성정에 나타나는 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의 회원들은 매일의 기도과 배우임의 성립, 월별 사역과 모든 총회적인 선한 행위가 자신들을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의(義)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고, 이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삶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게을리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을 합니다(전자는 하나님께서 조금 일하는 것은 남이가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후자의 경우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매주일 교회에 가고자 노력하지만 만일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주일을 지키지 못한 날보다는 교회에 갔던 적이 더 많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규칙적으로 읽으려 하는데, 성경을 읽는 일을 잊어버리거나 며칠 동안 읽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눈들에 위한 바깥으로 한계를 되쳐 착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삶을 율법주의-의롭게 하는 율법-을 장려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 일은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를 장려하거나 지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과 행동의 부(不)조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하에 하나님께 열심에 있으랴”라고 증거하였습니다(2절).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두 그룹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할 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서로 양립적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내적 바램은 외적인 행동과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내면과 외적인 목적,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은 우리를 향하여 몸과 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한 신민의 영적인 모습과 죄인을 위하여 십자로 몸과 피를 주신 외적인 모습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버리고요 요청하는 이유입니다(다메스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율법주의적 판단

만일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의 자아상 또는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고쳐본다면,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은 서로 다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대신하여 계속적으로 율법을 행하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내면과 외면은 영적으로 서로 부딪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는 다움과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느냐 하지 말라 ...” 혹은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라”(6~7절). 만일 선한 것을 행하면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중요한 것-절대 실재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는 의를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다른 쓸데없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8절).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8~9절). 달리 말하자면, 믿음의 말씀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내면과 외면은 동일합니다.

마음과 입술의 일치

바울은 율법주의가 아닌 믿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똑같이 만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심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영생을 주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10절). 이것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한가지는 내적인 요소인 믿고, 다른 한가지는 입술의 고백인 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입술의 고백은 모두 동일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의(義)와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의를 위한 율법의 완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마음과 입술이 함께 가도록 만듭니다.

차별의식에서 벗어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라”(11절). 여기서 우리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라”(12절). 그러므로 만일 지금 여러분들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영적으로 볼 때 일치한다면,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 역시 똑같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르게 말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여겨지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게 여겨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은 그들을 똑같이 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내면과 외면은 동일한 사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내면과 외면은 인종과 국적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한국인, 중국인, 독일인, 흑인종, 인도인, 스웨덴 또는 그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도 동일하게 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내십니다. 복음의 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며, 단지 우리의 열육육과 관련 지은 것입니다. 요엘 2:32절은 우리를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누구든지 의 회와 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부르심과 보내심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그들에게 가야만 합니다. 만일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좌절스럽게 생각하며 회피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너무 바쁘거나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든 등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죄인으로 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은 막대한 힘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말로 인한 의와 구원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애원의 동산에서 의를 상실했습니다. 율법주의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죽음 때문에 율법은 완성되었고, 믿음의 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같아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를 이루고,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구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따르지만,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는 듯이 율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깊은 길이 바깥 둘레에 채워졌습니다. 속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위한 율법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믿음의 말은 의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국적 혹은 다문화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곳이 전도지역이고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가야 합니다. 현재 총현 교회 외선부내에서의 인도네시아 예배는 인도네시아어로 통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형제, 자매들은 인천과 부천 지역, 문래동 지역, 용인 지역, 광주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먼 거리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외선부 교사들은 인도네시아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료들을 전도하는 제자로 양육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심방과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선부를 통해 수많은 인도네시아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갔고, 현재도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선부에서는 이러한 지체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교



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선부에 보내진 인도네시아 형제, 자매들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고, 자신의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 주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모든 총현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며 국내외국인 선교사역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국내 외국인 선교부 인도네시아 팀

언어훈련 및 CMTC 변경안내

본 교회에서 단기선교사 파송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언어훈련 및 CMTC강의 과목에 방글라데시어와 우크라이나어가 추가되고, 일부 과목의 강의실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수강신청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언어훈련(16주 코스) 강의 시간 및 교실배정

언어	시간	강의실	언어	시간	강의실
영어	18:10-19:00	베다니움	루마니아어	18:10-19:00	제1교육관 206호
방글라데시어	18:10-19:00	제1교육관 306호	스페인어	18:10-19:00	제1교육관 306호
몰도바어	18:10-19:00	제1교육관 301호	헝가리어	18:10-19:00	제1교육관 306호
리비아어	18:10-19:00	나사렛	소말리아어	18:10-19:00	본당 112호
우즈베키스탄어	18:10-19:00	제1교육관 204호	불가리아어	18:10-19:00	제1교육관 307호
키르기스스탄어	18:10-19:00	제1교육관 303호	중국어	18:10-19:00	제1교육관 201호
우크라이나어	18:10-19:00	제1교육관 303호			

2. CMTC 강의 일정 및 시간표

일정	주제(1강)	시간	주제(2강)	시간
매월 첫째주	영성훈련(1)	19:10-20:00	교회 선교정책	20:10-21:00
매월 둘째주	선교역사(1)	19:10-20:00	선교역사/카.정.회.불	20:10-21:00
매월 셋째주	전도실제	19:10-20:00	팀훈련의 실제(준비 및 시작)	20:10-21:00
매월 넷째주	단기선교인과 실제(나라별)	19:10-20:00	영성훈련(2)	20:10-21:00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8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 간총현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지역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몰도바로 의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몰도바는 구소련 국가 중 하나로서 잘 살았지만 독립 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난 몰도바 사람들은 문맹률이 매우 높고 신사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교관 국가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믿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녀왔던 의료팀과 지역사역들이 함께 8월 중순에서 몰도바의 키시노프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클라트보 단기선교를 다시 갈 예정입니다. 작년처럼 의료팀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나머지 단원들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2. 몰도바로 다시 단기 선교를 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몰도바는 인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소련에서 독립한지 10여년이 흘렀지만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아 미전도 종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기에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 몰도바가 기독교 국가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3. 몰도바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몰도바는 그 공산권 시절의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 관료적이고 비합리적이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통관 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의료 선교를 위해 약품을 가지고 들어갈 예정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기간은 10일이지만 오고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날 실전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날과는 일주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몰도바는 몇 백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 계에 봉사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워낙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더욱더 자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김대현
5교구 6지역장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9

1. 지역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4월 21일에서 5월 1일까지 스리랑카 캔디, 양파라아, 합만토타 지역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49가정으로 이뤄진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팀원 모집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지역 식구 5명, 같은 교구내 타지역 2명, 그리고 대학부 2명을 포함하여 9명이 확정되었고 기도 가운데 3명 정도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장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올 초 대학부팀을 이끌고 S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S지역에 살고 있는 B족은 무슬림으로 주로 유목생활을 합니다. 우리 팀원들은 그들이 매우 거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 그 지역은 또한 공식적으로 전도가 금지되어 있고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투방을 당합니다. 저녁 평가의 시간에 팀원들과 나는 서로가 말은 안했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새벽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혜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 58:9a)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속주 주인이 소개해 준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 가이드가 B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B족 마을로 안전하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후에는 발길 닿는대로 걸어 엘사하프 지역에 가게 되어 그곳에 만나 B족 살라마 가정과 어린이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나에게도 큰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선현
5교구 3지역장

3.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제로 삼고 싶은 성경구절과 그 이유는?

"그러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나라"(눅 18:27)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이 모든 일을 사람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순종할지 원합니다.

(영광성 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난 12월 29일 주일, '난영하세요, 학생회 회계 박현민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했다. 이제 1년 동안 '회계'라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걸어갈 것이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걸림돌이 되어 막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고 기대해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중등부에서 3년 동안 계속 면리회에서 봉사해왔지만, 일을 하면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다. 행사를 계획할 때에는 나의 지식으로 담겼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든, 특송을 할 때든 모든 일에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었다. 평일엔 성경 한 번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주일엔 임원으로 봉사했다. 해를 거듭할 때마다 항상 회개하고 다시 다짐했지만,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시는 봉사를 하기로 정말 쉽지 않았다.

고등부에 올라와 내가 깨어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내 것인 줄 알았던 하찮은 능력마저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사람과 일을 하느라 그 안에 기쁨이 없고 무미건만 했는데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요즘, 내가 지금 걸어온 이 십자가가 감사하기만 하다. 이 2003년 1년 동안, 아니 나의 평생 동안,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때로는 나를 꾸짖으시고, 치유하시며 주님의 임원으로 키워주시길 그분의 계획. "나는 그 계획을 다 해야 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대로 걸어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를 만나주시 계획, 그 계획에 대한 기대로 지금 나의 가슴은 두근거린다.

박 현민 (고등부)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우리는 자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새해 첫 날이나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새로운 다짐을 하며 각자의 계획을 세우지요. 여러분은 우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나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여러분이 계획한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의 결심이 점점 약해져서 너무 힘이 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요. 누군가 우리의 걸음을 함께 지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잠깐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울 한 해를 지내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믿지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매 순간 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안에서 이루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울 한 해를 보낼 때, 예수님의 도움을 손길로 느끼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고등부 편집부)

장학생 인터뷰 ②

1. 천국같은 곳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같은 곳이란 그 이름대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님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봉사하는 곳은 어디이며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십니까?

지금 저는 고통부의 예보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이 곳만이 내 봉사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내 발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3.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릅니다.

4.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큰 가르침인 전도자의 일에 게으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역시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5. 최근에 오해받은 말씀은?

고등부 예배시간 설교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했다는 것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김 희철 (고등부)

도기자와와 도기

성경과 철학

청년들, 특히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가 성경을 하나의 완벽한 철학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가 어떤 철학보다도 뛰어난 철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최고라고 인정하는 척하며 성경을 자신들의 잣대로 계산하며, 자신들의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은 부정하거나 변형한다. 혹은,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으니 어떤 진리에 대해 자신들은 감을 잡고, 느끼며, 고뇌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계산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전 1:21). 인간들의 그 철학적인 고뇌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온 것이다.

신학이 철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철학이 신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철학이라 함은 모든 철학자들이 동의하며,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어, 인간의 세계관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책이다. 신학을 철학의 범주에 넣어 판단하려는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책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니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전 8:17).

그렇다면 인간은 성경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이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믿음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지식에 이르게 한다(행 15:9). 믿음이 곧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분명 신자이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역시도 믿음이 없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지식을 보이시고자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막 4:11).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분과 함께하여 그분을 보며 그분을 알 것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인간의 존재에 대해 고뇌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믿음이 가져다주는 지식은 철학적인 모든 딜레마들을 해결해 주기에 충분하다. 19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자 '헤퍼'는 성경에 인간의 딜레마에 대한 모든 해결책, 즉 분별과 모든 것을 아는 지식과 무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지혜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잠 1:7), 무지에 대한 모든 근원과 끝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높이고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발 버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이 우주의 창조인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므로 이것을 얻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 딜레마의 해결이다. 인간의 문제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적인 죄'(단지 죄책감이 아닌)이다.

자, 아직도 인간의 세계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고뇌하는 인간이 훌륭하다고 간사하게 주장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고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고뇌를 끝내고 싶다면 그리스도께 순복하라.

(권요섭 기자)

다시 하나님을 만나볼 어머니를 생각하며

홍희정 (영아부 믿음 5만 준하 엄마)

나는 지금도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위장병으로 고생했던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다. 교회에 나가시더니 헬스케도 좋아졌고,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시며 기뻐하셨다. 구역예배를 드리시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찬송을 부르시곤 했다. 어린 나는 찬송과 구역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마음 속에 찾아오셨음을 확인했다.

할머니는 불교 신자였다. 절마다 가족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를 드리셨다. 그래서인지 집안에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의 가정을 놓고 몇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했다. 어머니는 신앙으로 무난히 잘 견디어냈었다. 하지만 남동생이 병이 나자 엄마는 교회에 나가시길 두려워 하셨고 또한 할머니께서는 "우리 집은 불교 집인데 네가 교회에 나가간다면 이렇게 우환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며 교회에 나가길 말라고 하셨기에 엄마도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오빠를 불교로 개신 것을 확인한다. 단지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손을 잡지않고 계시는 뿐인 것이다. 어머니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야지요" 하고 권유를 하면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하시며 내심 집안에

부모님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는 점점 조금씩 부모님의 구원이 더욱더 절실히 여겨진다. 부모님의 영혼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어머니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여전히 팔을 붙잡고 계신 것을 확인한다. 단지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손을 잡지않고 계시는 뿐인 것이다. 어머니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야지요" 하고 권유를 하면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하시며 내심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두려워 하시며 현재의 삶에 안주하신다. 심판과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을 저버린 세월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새벽예배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설교를 들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맞다!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의 선행과 윤리 도덕과 칭찬 받을 만한 일로 천국에 들어가질 못한다. 하나님을 믿고 지낸 세월 때문에 죄송해서 자기의 윤리적 도덕적인 생각에 어머니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탕자가 집을 떠나 방황하며 소주한 모든 것이 떨어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고 좋은 옷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탕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기를 기도한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눅 15:32).

어머니께서 하루 빨리 구원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어머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긍휼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다시 한 번 기도한다.

우리가족 이야기

이인화 (유치부 열매7만 유상원 엄마)



상 곁에 계시어서 기쁨으로 우리 가족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은 이 험한 세상에서 소중한 기쁨이 됩니다.

남편과 저는 언제나 아이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니?"하고 물으면, 아이들은 "하나님", "엄마! 아빠!"하고 대답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의 중요성과 교회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합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하면, 남편은 침착하고 따스한 사람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딸 송원이와 아들 상원이는 연년생입니다. 두 아이가 연년생인 덕에 상원이는 유아부 시절까지 누나를 따라 누나네 반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송원이와 상원이는 성가대를 합니다. 유아부 때부터 성가대를 해서인지 아이들은 평소에도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지냅니다. 이런 모습은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겨울 성경학교를 가면 아이들은 성경암송도 하고 찬송과 율동도 하며 시간가는 줄 모르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다니는 제가 매번 같이 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질타감을 안겨 주었는데 작년에는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유치부에서는 3월 1일에 성경학교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경학교가 기다려집니다. 벌써부터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성경학교에 갈 수 있다는 즐거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누나나 그렇듯이 저도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으로 우릴 감싸주시는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계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큰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다윗의 범죄

볼이 되어 다시 시작된 랍바와의 전투에서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편안하게 예루살렘 궁에 거한 다윗은 영적 건강이 풀려있었습니다(삼하 11:1).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은 밋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삼하 11:2),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한가함, 영적 내막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법이요 인간이 보는 것에 약해져 수박에 없는 낙향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네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시 119:37).

다윗은 유부녀였던 밋세바를 불러 동침하였고, 밋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삼하 11:4). 다윗이 계속적으로 짓게 되는 죄는 번식력이 강하여 열매를 맺고 맙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살전 5:22).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다윗은 자기 죄를 뉘우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자 결국 밋세바의 남편인 헷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맙니다(삼하 11:17). 다윗은 일단 우리아를 제거하기만 하면 자신의 부정행위(삼하 11:4)가 영원히 감추어지고, 또 밋세바까지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을 것(삼하 11:27)이라는 생각으로 이 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적발해 내시지요. 다윗의 죄악 역시 결국 낱알이 드러나고 맙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합 1:13a).

성경은 다윗의 죄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인간의 낙향함과 죄의 속성을 보게 하시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맺도록 하기에 힘씁니다. 성경을 통해 죄를 짓는 인간을 보면서, 우리 죄인들에게 애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우리들에게 죄를 깨달아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지요. "내 손 끝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없고 나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롬 7:18).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도 죄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짓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며 더욱 철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권형익 기자)

